'가회중학교 합천FC-U15 축구후원회' 창립총회 개최



지난 4월 2일(토) 오후 2시 가회중학교(교장 서원일) 강당에서 군의회 배몽희 의장, 김윤철 도의원, 임재진, 신경자 군의원 등과 지역인사, 향우회장, 초, 중동창회장, 합천FC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가회중학교합천 FC축구후원회〉 창립총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날 추진준비위원장인 가회학원 허종휴 이사장은 개회 인사에서 "가회면과 유소년 축구클럽이 상생하면 지역이 발전하고 학교가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후원회 창립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후원회장으로 합천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허종홍 전 가회중학교 총동창회장을 추대하였다. 허종홍 후원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존폐 위기에 처한 농촌학교인 가회중학교에 합천FCU15 클럽이 유치되면 작은학교 살리기와 지역발전이 함께 이뤄질 것으로 믿으며 앞으로 후원회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기타 주요 임원으로 감사는 이성근, 허우선, 수석부회장은 권영기(전 가회중총동창회장), 고문으로 허종휴(가회학원 이사장), 자문위원으로 허태숙 가회면장을 등을 추대하고 사무국장은 이창열(전 가회중 행정실장)으로 정하고 추가임원 선임권을 회장에게 위임하였다.

후원회비 모금 방법은 개인 기부, 찬조금 외에도 〈1인이 매월 1만원을 자동이체로 송금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공지사항으로 경기관람을 위하여 합천FCU15 클럽팀의 리그전 프로그램을 안내하였다. 이날 개최한 〈가회중학교합천FCU15축구후원회〉 창립총회는 합천군내의 축구 꿈나무가 육성되고 지역학교와 지역민이 상생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성황리에 마쳤다.

황매산악회 임인년 산행 안전기원 시산제 올려



재경대병면향우회 박종상 24대 신임회장 주관

지난 4월 17일(일요일) 재경 대병면 향우회 24대 박종상(대병중 21회) 신임회장을 비롯한 새로운 임원진이 조직된 후 30여 명의 재경 대병면 황매산 산악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천지신명에게 산행 시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올렸다. 오전 11시 30분 노오란 개나리와 분홍빛 진달래 꽃이 어우러져 정기가 넘치는 명산 북한산 중턱 아늑한 곳에 자리잡아 준비한 제물을 차려놓은 후 강해순(대병중 22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순국선열 및 먼저 돌아가신 산악인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린후 박종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임 송인환 회장의 바톤을 이어받아 24대 회장으로 취임하게되어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선 후배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며 미약하지만 재경 대병면 향우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피력하고 제례에서 분향 후 초혼문을 낭독하고 3배 절을 올렸다. 초헌잔은 송인환 직전 향우회장이 올리고 류재권(9회)(전) 서울개봉초교장이 신령에게 올리는 축문을 낭독한후 문희주(8회) (현) 재경합천군향우회장의 아헌잔과 이수인(9회) (전) 대병면향우회장이 종헌잔을 올렸다. 올 한 해 동안 무사 산행을 기원하는 헌작을 이두영 향우회 고문, 문계순(전) 향우회장을 비롯한 기수별 그룹으로 잔을 올리고 3배를 올렸다. 끝으로 일동 3배를 올린 후 제례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서울에 유학 온 프랑스인(Foreigner)도 합류하여 한국 산악인들의 전통행사를 소개한후 외국인은 한국의 전통 막걸리로 음복주와 나물반찬과 시루떡(Korean Cake)을 맛보면서 "Korean food is very delicious"라면서 "한국의 음식에 매력(attractive)을 느끼고 인상 깊은(impressive) 제례 행사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감탄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봄을 주제로 한 가곡 「동무 생각」, 「산 너머 남촌에는」 「목련화」를 음악 반주에 맞추어 다 함께 부르면서 화창한 봄의 풍경을 가슴에 듬뿍 담고 행의 막을 내렸다. 재경 대병면 향우회는 「재경 대병중 학교동문회」, 「황매산 산악회」, 「대병면 향우회」 3개 단체를 병합하여 『재경 대병면 향우회』로 통합운영되고 있다. /재경 명예기자 류재권

봉산면어업계 회원들 "신규사업자 허가 보류 하라"

하천법 시행령 39조 "기득하천사용자 동의 얻어야 한다"

봉산면어업계 비상대책위원회는 합천군청을 방문해 이선기 부군수에게 봉산면 술곡리 하천 일원에서 레저사업을 위한 신규 하천점용허가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상대책위는 "2022. 1.21.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 39조 ②항에는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 하천점용허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신규사업자는 봉산면어업계의 동의 및 술곡리 하천 일원의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합천군관계자는 "현재 신규허가가 난 구역은 기존의 동종례 저업체들과 중첩되지 않는 구역으로 동종업체들로부터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기존의 동종업체들도 25년 이상 레저사업을 영위하면서 어업계의 동의 없이 묵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해온 만큼 신규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비상대책위는 "하천법 시행령 39조에 근거해 이제라도 어업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어업계 내부 분쟁 시에는 '회의록'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봉산면어업계의 회의록 첨부와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신규허가를 보류해 달라"고 했다.

합천군관계자는 "일단 민원이 발생한 만큼 현장에 나가서 면밀히 조사한 후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박인욱 기자



봉산면어업계 비상대책위는 이선기 부군수를 만나 봉산면 술곡리 일원의 하천에서 신규레저사업을 위한 허가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합천 두무산 선도산림경영단지 밤 유통설명회 및 율피떡 나눔행사 실시



합천군산림조합(조합장 이인숙) '18년 선도산림경영단지 공모사업'을 통해 10년간 사업비 75억을 확보하여 조림, 풀베기, 임도개설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합천군산림조합은 밤6차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밤마리', 카페 '모토라드'와 협약하여 깐 밤을 납품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선도산림경영단지에 밤나무를 식재해 재배한 밤을 합천군산림조합에서 수매하여 위의 협약업체에 납품하는 유통 설명회를 묘산면 안성리, 도옥리, 화양리에서 실시하고 '밤마리'에서 생산하는 율피떡 나눔행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합천군산림조합

